

무언의 대화

천경우의 퍼포먼스 작품들에 대한 생각들

잉고 클라우스, 큐레이터, 현대미술관 Weserburg

두 사람이 악수를 한다 - 이런 인사법은 많은 나라들에서, 주로 서구에서 흔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몸짓으로 상대방에 개방적 자세와 존중을 나타내 보인다. 처음 만날 때에 이런 식으로 손을 잡으면서 두 사람은 약간 가까이 서면서도 동시에 적당히 필요한 거리도 지킨다. 악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조직하는 여러 의례 행위 중 하나이다. 관습이 된 행동들은 우리가 이웃들과 지내는 방법을 분명하게 새겨줄뿐더러,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을 제어한다. 한국 출신 작가 천경우는 이런 맥락들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작품들에서 이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일상의 행동들과 몸짓은 그 동안 천 작가가 십년 전부터 시작해 왔던 퍼포먼스들의 출발점이다.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과정인 이 퍼포먼스에는 개인들 또는 여러 무리가 공연할 수 있다. 이 퍼포먼스는 관중에게도 적극적으로 열려 있다.

2009년 여름에 퍼포먼스 작품인 <Greetings>가 브레멘 미술관(Kunsthalle Bremen)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20명의 사람들에게 퍼포먼스 참가자들 중에서 짝을 고르라고 청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이들이었다. 곧장 그들은 20분 동안 손을 내밀고 악수해야 했다. 맞잡은 두 손에 비닐 랩을 말아 서로 뗄 수 없게 연결했다.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다. 사용한 수단들은 아주 간단한데도 서로 인사하는 몸짓에서 예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강렬함과 가까움이 담긴 순간이 생겨났다. 이 때에 천경우는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의식적 지각을 중요하게 여겼다. 참가자들은 낯선 이에게 어떤 상태로 마주서 있는지를 몸으로 체험해야 했다. 상대방에게 처음 말을 건넬 때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눈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느낌인지, 꼭 잡은 손의 따뜻함이 어떤 느낌인지 - 그런 것을 체험해야 했다.

이미 2년 전에 천경우 작가가 실행한 퍼포먼스 <Versus>는 비슷한 착상을 따르지만 효과에서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이 퍼포먼스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나라들과 여러 도시들에서 볼 수 있었다. 뉴욕, 바르셀로나, 취리히 등을 거쳐 이제 서울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치렀다. 진행 과정은 매번 똑같았다. 참가자들은 서로 마주세운 긴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는다. 머리를 짝의 어깨 위에 대고 15분 동안 이 자세로 있었다 - 눈을 감고 가능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외부에서 보자면 이 무리들은 명상에 빠진 고요한 섬같이 보였다. 뉴욕 타임즈 스퀘어는 이 퍼포먼스가 달리는 차와 보행자로 가득한 대도시의 분명한 반대상이 아니겠느냐 보았다. 이 장면은 얼른 보기에 조화롭게 보일뿐더러 공동체 속에서 화해하는 것 같다고 오해되지만, 참가자들에게는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과제였다. 작가로부터 요구된 신체적인 접근은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낯선 이들에게는 자기를 알려주지 않으려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경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체험한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또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도 더욱 강렬해진 지각의 대상이 된다.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에 예민해지게 되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에도 예민해 지며, 심장 박동 소리, 신체들의 피곤한 부담에도 신경이 쓰인다. 많은 이들이 만날 때 갖게 되는 이런 아주 가까운 느낌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꼈다. 한편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내적 긴장에 놀려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양한 반응과 감정들을 파악하고자 천 작가는 자신의 퍼포먼스를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서 실행했던 것이다

이 퍼포먼스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 ‘人’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한자의 모양은 앞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지만 또한 두 사람이 서로 기대서 서로를 받쳐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이 퍼포먼스의 출발점이다. 이 퍼포먼스는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자신을 단점과 장점, 소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로서 다시 바라볼 때, 반대편에 서 있는 다른 이와는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기도 하다. 천경우의 예술은 이에 대한 예이다. 사람들이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생각에 빠지는 자리가 생겨난다. 물론 이 자리는 잠깐 동안만 있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고 만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며, 이야기를 쓰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순간들을 불충분하게 기록할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록들은 기억 속에 다양한 흔적을 남기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늦어도 1960년대, 1970년대 전위 예술 운동 이래 퍼포먼스는 예술적인 행위의 형태로 국제적인 예술 창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요소가 되었다. 앨런 캐프로의 해프닝이나 다양한 플럭서스 행사와 콘서트들 그리고 요셉 보이스의 프로젝트들 또 보이스가 남긴 유명하면서도 그만큼 오해되는 „누구나 예술가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라. 예술의 한계를 넘어서기, 사회 참여 그리고 예술과 삶의 일치는 이런 맥락에서 그저 중요한 몇 개의 핵심어들이 될 뿐이다. 천경우의 퍼포먼스는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역사적인 입장들에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은 그런 하나의 발전의 연속선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그의 퍼포먼스들은 그를 국제적으로 명성 있게 만든 특수한 형식의 사진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천 작가는 연작의 사진들과 개별 사진들을 작업해 왔다. 그 중에는 상대적 흐릿함을 보인 인물사진들도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이라는 전례 없이 긴 노출시간의 결과이다. 긴 노출시간이 19세기 사진의 초창기 기술수준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면, 천 작가에게는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예술적 고민의 결과이다. 천 작가는 사진들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들지 않는다. 보통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천 작가에게는 시간과 지속의 체험이 결정적이다. 사진은 이를 위해 적합한 보조수단이다.

많은 경우 그는 스튜디오에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촬영하는 동안 자신에 대해 말해 보라고 청한다. 하루 일상이 어떤지 (*Six Days*, 2003),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In/finite*, 2006) 말해보라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 자신은 자신의 외모를 상상해 보라고 (*Believing is Seeing*, 2007) 작가는 청한다. 아무 말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사진작가와 인물 사이에는 전례 없는 결속 관계가 생겨나서는, 서로에 대한 지각, 집중 그리고 반성에 흔적을 새긴다. 이는 무언의 대화로 사진 속에 압축된 형식으로 새겨지며, 주의 깊게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러한 무언의 대화가 전해진다. 천경우는 “사진을 위한 퍼포먼스”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튜디오에서 가졌던 경험과 만남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행동들로 확장된다. 실제로 천 작가가 사용하는 매체들은 서로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퍼포먼스, 영상, 사진, 설치는 다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에 대한 조건이 되며 때로 혼종(混種) 형식이 생겨나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영상 작품의 근간은 퍼포먼스이다. <Perfect Relay: Citius, Altus, Fortius (2012)>는 런던 올림픽에 맞춘 전시회를 계기로 제작되었다. 작품의 제목이나 맥락은 운동 경기에서 갱신되는 최고 기록을 짐작케 하지만, 이는 작품의 주제가 아니다. 소재는 무엇보다도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들이다.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가 그런 일상적인 행위들을 방해하면서 전혀 새로운 경험의 대상으로 바꾼다. 천경우는 여러 나라 아이들을 불러서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계”라는 올림픽의 익숙한 표어를 각각 자기 나라말로 종이에 쓰게 한다. 연필은 마치 계주경기의 바톤처럼 전달되어서는 첫아이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아이가 다른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할 순간, 생겨나는 어려움은 특이하다. 보통 금방 할 수 있고 또 대단히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도, 이 때에는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작가는 성취해내겠다는 중단되지 않는 의지와 열정을 가로막으면서 이 상황의 이면을 보여준다. 부족함과 실수는 생산의 동력이 되며, 예술적인 노동을 위한 동력만은 아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깨달음과 창조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Perfect Relay>는 이를 통해 관용에 대한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굽히지 않는 성과 사회의 원칙에 대한 대안으로 경쟁 대신에 들어서는 것은 서로 나누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체험이다.

최근 작품인 <Gute Nachrichten (2012)>은 이러한 의미에서 -국경과 문화, 시간대를 넘어서서 - 한국의 서울과 독일의 브레멘에 사는 사람들을 연결시킨다. 천 작가는 수년 간 이 두 도시에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20 명의 브레멘 시민은 기꺼이 받고 싶은 좋은 소식(Gute Nachrichten)을 적어내도록 요청 받았다. 20 명의 서울 사람들은 이들이 말한 소망들 중 자신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소식을 골라낸다. 퍼포먼스 당일에 참가자들은 생중계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서로 만난다. 그렇지만 말은 나누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차례로 독일인 상대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고, 독일의 파트너들은 이에 따라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좋은 소식을 상징적으로 전한다. 바로 이 순간 이 두 사람들 만이 서로를 보며 어떤 소망에 서로 하나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 - 나이, 성, 살아온 과정에 상관없이. 자기 인식은 여기서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다.

천경우의 작품은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휴머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서구 철학과 동양 철학의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 그는 조화와 동형성이라는 단순한 세계상을 다루지 않는다. 그의 작품들은 말없는 몸짓을 예술로 변화시키며 이 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의 가치를 알아본다. 그의 작품들은 서로 다르고 반대되며 약점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모순된 상태 속에서 풍부함으로 파악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천경우가 이해하는 예술의 과제는 우리의 지각 능력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손을 잡는 몸짓 하나에서 시작한다.